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 목 차

## ■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	2
3. 산업별 성장요인 분해 .....	4
4. 시사점 .....	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 ■ 개요

국내 경제는 노동 및 자본 투입의 둔화와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국내 주요 산업별 잠재성장률(실질GDP증가율)을 추정해 보았다. 또한 산업별로 요소 축적(노동, 자본)과 기술향상(총요소생산성) 등의 성장기여도를 측정해 보았다.

#### ■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첫째,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4.4%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둔화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p씩 하락하였다. 최근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2011~2015년)은 4.4%로 이전 5년간(2006~2010년) 잠재 성장률보다 약 1.4%p 하락하며 가장 빠른 감속을 보이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빠른 하락 추세를 지속 중이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6~2000년 5.6%로 큰 폭의 레벨 다운을 경험했다. 이후에도 2001~2005년 4.3%, 2006~2010년 3.6%에 이어 2011~2015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셋째, 건설업의 가장 최근(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0.5%로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국내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0%에서 1996~2000년 0.1%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01~2005년 0.4%, 2006~2010년 0.1% 등 거의 제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2011~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내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은 2006~10년 3.9%에서 2011~15년 3.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록 제조업 성장률 하락폭이 서비스업보다 크지만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전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 ■ 산업별 성장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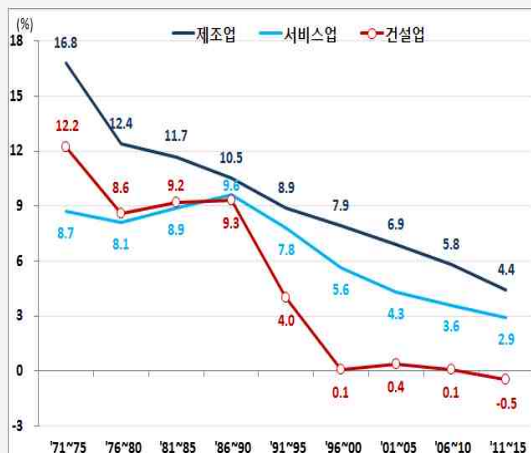
첫째,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구조 역주행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요인별 성장 기여도 중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급감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성 향상은 1990년대 정보화 혁명을 통해 크게 이루진 바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혁신 인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노동 투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원인은 최근 IT와 자동차 등 일부 주력

산업의 경기 호조에에도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으나,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 잠재성장률에서는 생산성 향상보다 노동 투입 증가가 여전히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비스업 성장이 기술 혁신 보다는 노동 투입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은 최근 고부가 서비스업 보다는 저부가 업종에서 노동 투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높은 규제 수준으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못한 점도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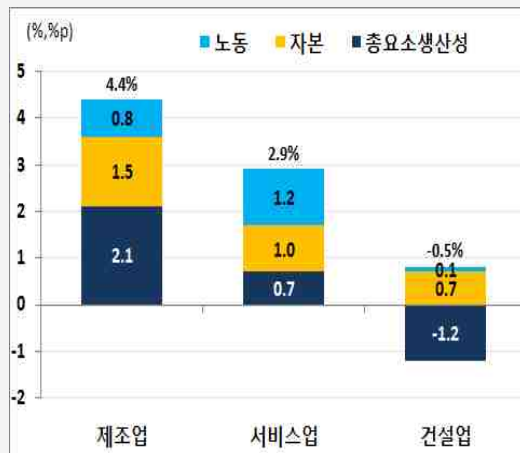
**셋째, 건설업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국내 건설업은 1960~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산업시설 및 SOC 투자 급증 등으로 국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고도 성장기부터 생산성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낙후적인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잠재성장률 요인분해(2011~15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2011~15년 잠재성장률 기준.

■ 시사점

국내 주력 산업들의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와 성장력 복원을 위해서는 **첫째**, 노동 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구, 핵심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업이 자본과 기술 중심의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규모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건설업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장 개척, 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 1. 개요

○ 국내 경제는 노동 및 자본 투입의 둔화와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

-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

-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요소 축적과 기술진보에 의하여 결정

- 잠재성장률은 자본축적 및 노동인구 증가 등 요소 축적과 기술진보(생산요소를 이용하는 효율성의 진보) 등 장기적인 변화가 경제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여 영향을 미침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3.2%에서 2016년 이후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sup>1)</sup>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기간 중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하락 요인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국내 주요 산업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봄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 측면으로 구분하여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낮아졌는지 그리고 성장요인별 특징을 살펴봄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산출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으로 분해
- 농림어업, 광업, 전기수도가스 등 여타 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으로 분석을 한정

1)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1월.

## 2.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 (분석방법)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은 산업별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 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산출

-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산업별 잠재성장률을 전망

- 과거 산업별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산업별 잠재GDP를 산출
- $Y$ 는 산업별총생산,  $A$ 는 총요소생산성,  $L$ 은 노동 투입,  $K$ 는 자본 투입이며  $\alpha$ 는 노동분배율,  $1-\alpha$ 는 자본분배율을 의미

$$Y_t = A_t L_t^\alpha K_t^{1-\alpha}$$

- 노동 투입의 경우 취업자수 또는 취업자수×취업자들의 취업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수로 측정

- 취업자수와 동시에 평균 근로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욱 정확한 노동 투입량 지표이지만 산업별 평균취업시간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취업자수로 노동 투입을 측정

- 자본 투입의 경우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서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 자료를 이용

- 자료는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제공되며 2015년은 순자본스톡에 대한 양의 플로우(총고정자본형성) 누계액에서 음의 플로우(감가상각)의 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인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추정

- 총요소생산성은 실제 경제성장률에서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 증가율에 따른 기여분의 차이에 의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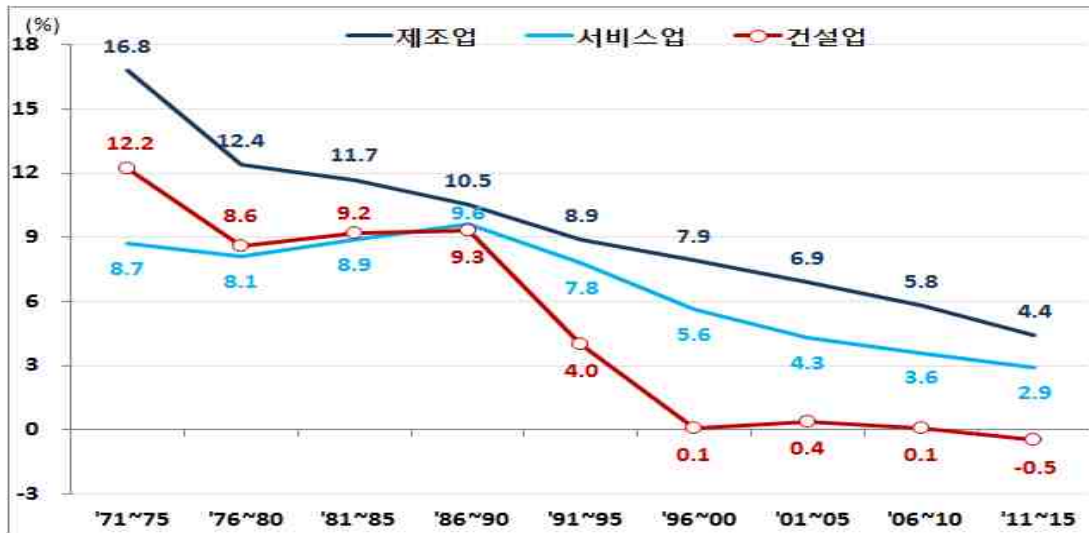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노동, 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생산 부분을 의미

$$A_t = \frac{Y_t}{L_t^\alpha K_t^{1-\alpha}}$$

○ (추정결과)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최근 산업별 잠재성장률 하락 폭을 고려 시 제조업, 서비스업이 최근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을 주도

-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4.4%로 서비스업, 건설업 대비 가장 높지만 최근 둔화폭은 가장 컸음
  -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p씩 하락
  - 최근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2011~2015년)은 4.4%로 이전 5년간(2006~2010년) 잠재 성장률보다 약 1.4%p 하락하며 과거 평균 하락치보다 더욱 컸음
-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2.9%임
  - 국내 서비스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6~2000년 5.6%로 큰 폭의 레벨 다운을 경험
  - 이후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3%, 2006~2010년 3.6%로 하락하였으며 2011~2015년에는 2.9%를 기록
-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0.5%로 역성장 기록
  - 국내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0%에서 1996~2000년 0.1%로 큰 폭으로 하락
  - 이후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0.4%, 2006~2010년 0.1% 등 제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10년 3.9%에서 2011~15년 3.2%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경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영향으로 판단
  -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은 국내 총부가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제조업이 약 30% 서비스업이 약 60%를 차지
  -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2006~10년 5.8%에서 2011~15년 4.4%로 1.4%p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은 동기간 3.6%에서 2.9%로 0.7%p 하락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과 잠재성장률 하락폭을 고려 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경제 전반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3. 산업별 성장요인 분해

○ 제조업은 기술진보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구조의 역주행이 나타남

- 제조업의 요인별 성장 기여도 중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급감하고 있는 모습

- 제조업은 1980년대까지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부터 요소 축적이 한계를 보임
-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1990년대 정보화 혁명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며 노동과 자본 투입 감소를 상쇄하고 제조업 잠재성장률 향상을 견인
- 그러나 최근 총요소생산성은 2001~05년 6.0%p, 2006~10년 4.3%p, 2011~15년 2.1%p로 급감한 반면, 노동의 투입이 다시 늘며 제조업 잠재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

-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 부문의 노동 투입은 최근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제조업의 노동 투입은 자동화, 공정 합리화,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



- 그러나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제조업 고용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 이는 동아시아 생산구조상의 일시적 적체현상으로 인한 국내 고용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최근 IT와 자동차 등 일부 주력 산업의 경기 호조에도 영향을 받은 측면도 존재하나, 근본적으로는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
- 다만 2016년에 들어서는 제조업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진행중

< 제조업 잠재성장률 요인분해 >

(%,%p)

	잠재성장률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1971~75	16.8	7.2	6.9	2.6
1976~80	12.4	3.9	6.0	2.5
1981~85	11.7	3.2	5.3	3.1
1986~90	10.5	2.3	4.7	3.5
1991~95	8.9	-0.2	3.1	6.0
1996~00	7.9	-1.1	1.9	7.1
2001~05	6.9	-0.7	1.6	6.0
2006~10	5.8	-0.1	1.7	4.3
2011~15	4.4	0.8	1.5	2.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서비스업에서는 여전히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가 지속

- 서비스업은 여전히 노동 투입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이 가장 높음
  - 제조업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 기여도는 1.2%p로 자본 기여도 1.0%p와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0.7%p 대비 가장 높았음
  - 노동 투입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2001~05년 38.8%, 2006~10년 38.2%, 2011~15년 40.2%로 높아지는 모습
- 서비스업 성장이 기술혁신보다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는 원인은 여전히 고부가 서비스업보다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노동유입이 늘고 있기 때문

-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경활인구의 구직활동으로 서비스업 취업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취업이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생계형 업종에 집중
  -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방송통신 등 고부가 서비스업 보다는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노동유입이 많이 발생
  -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노동유입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서비스 산업의 높은 규제 수준으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못한 점도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
- 제조업의 경우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크지만 서비스업은 자유로운 시장 진입, 퇴출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신규 업체가 생산성이 낮은 업체를 대체하는 것이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큼

< 서비스업 잠재성장률 요인분해 >

(%,%p)

	잠재성장률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1971~75	8.7	3.1	5.0	0.6
1976~80	8.1	3.7	4.4	0.0
1981~85	8.9	3.7	3.9	1.3
1986~90	9.6	3.6	4.1	1.9
1991~95	7.8	3.1	3.7	1.0
1996~00	5.6	2.2	2.6	0.8
2001~05	4.3	1.7	1.9	0.8
2006~10	3.6	1.4	1.4	0.8
2011~15	2.9	1.2	1.0	0.7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건설업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중**
- 국내 건설업은 1960~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산업시설 및 SOC 투자 급증 등으로 국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었음
  - 대규모 SOC 사업 진행과 중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이 늘어나며 국

- 내 건설업은 급성장
  - 1980년대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음
- 그러나 국내 건설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성숙기에 진입하며 2011~2015년 중에는 -0.5%의 역성장을 보임
  - 외환위기를 겪으며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건설업은 이후 회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짐
- 건설업은 고도 성장기부터 생산성 향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낙후적인 생산 구조가 지속
  - 건설업은 1990년 초반까지는 자본과 노동 투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고성장의 원인
  - 그러나 기술 향상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기술 혁신이 부족
  - 국내 건설 부문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건설 수요가 한정적인 가운데 업체들 간 경쟁이 과열되며 생산성이 악화

< 건설업 잠재성장률 요인분해 >

(%,%p)

	잠재성장률	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1971~75	12.2	7.9	8.1	-3.7
1976~80	8.6	4.5	6.7	-2.6
1981~85	9.2	3.2	5.7	0.3
1986~90	9.3	4.5	5.5	-0.7
1991~95	4.0	2.7	3.5	-2.1
1996~00	0.1	0.1	1.1	-1.2
2001~05	0.4	0.2	0.2	0.0
2006~10	0.1	0.0	0.4	-0.3
2011~15	-0.5	0.1	0.7	-1.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 4. 시사점

- 국내 주요 산업들이 여전히 물량 투입 위주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제조업마저 혁신 요인보다 물량 요인에 의존하는 산업 발전 단계의 역행 현상이 발견됨. 따라서 이러한 산업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함

첫째, 국내 주력 산업들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

-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혁을 신속히 진행하여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
  - 가까운 시일 내에 노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활용 구조를 개선
  -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
-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 규제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비용편익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정부와 기업 간 '규제유연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정 규제와 산업 현상과의 괴리 발생 시 해당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둘째,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구, 핵심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주력해야한다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및 시장선점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를 추구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3D프린팅, 나노와 바이오 공학 등임
- 기업의 중장기적 비전이나 정책 수립 시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및 시장선점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초·원천 연구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임**

-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함
- 또한 우리 제조업의 취약점 중 하나인 핵심기술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초·원천 연구의 정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산업 내 비가격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산업계 내부적으로는 기존 주력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
- 또한 생명과학, 신소재, 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신산업의 기반 육성, 경쟁력 강화, 기술 표준 선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

셋째, 서비스업이 자본과 기술 중심의 선진화 된 산업구조로 진행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규모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IT 활용 및 융합 확대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혁신 역량을 확보**

- 정부의 서비스업 R&D 지출을 확대하고 민간 R&D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요인을 제공하여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도·소매 서비스, 금융 서비스, 사업 서비스 등 IT 산업과 연관성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IT 이용을 촉진
- 서비스업과 제조업,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이 서비스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

- 특히, 서비스업내 M&A 활성화, 생산성이 높은 신규기업 진입 유도를 통해 서비스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세성을 극복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이 무형의 형태를 가지는 서비스 기업 자산에 대한 업계의 공통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넷째, 건설업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

- 과거 시공 중심의 건설 산업 성장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중심의 성장이 필요
  -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영역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파이낸싱을 통한 투자 개발형 해외사업 활성화
  - 시공 가격을 절감하는 효율성에서 벗어나 기획이나 설계, 밸류 엔지니어링<sup>2)</sup>, 시공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절감을 통해 건설업의 효율성을 높임
-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장 개척을 통해 일부 지역에 편중된 시장을 다변화
  -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기술개발, 녹색교통망 구축, 친환경 중소담 건설 등 녹색건설, 초고층빌딩 기술역량 확보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수주 측면에서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유가하락 등의 리스크가 높은 시장 구조를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김천구 연구 위원 (2072-6211, ck1009@hri.co.kr)

2) 구하려는 기능을 최소의 자원 비용으로 얻기 위하여 제품의 가치와 관련되는 여러 요인과 제품 비용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의 관계를 검토·분석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방법.